§ 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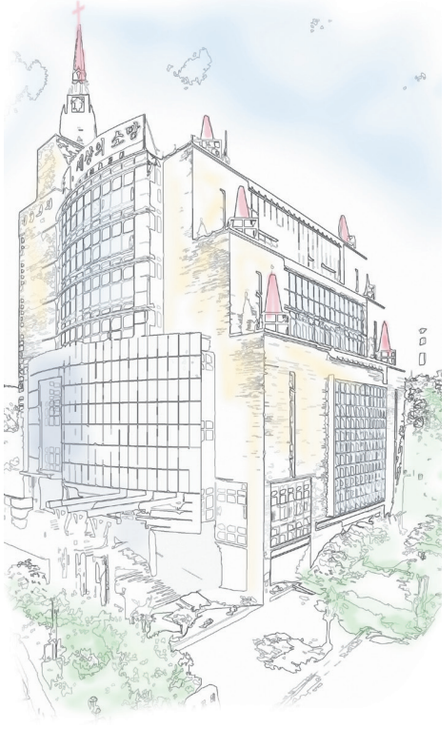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평화를 위하여 Ⅱ

(여호수아 22:1 ~34)

이종윤 원로목사



Ⅲ.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러나 전쟁은 즉시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동편으로 간 족속들에게 진군하는 행진을 하기 전 그 상황을 먼저 조사하기로 하고 대표군을 파송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외심과 형제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1.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소위 서방측)에서 파송된 대표들은 동으로 간 이들의 주관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판단함으로써 중요한 일을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우 신중히 행동했다. 이들 대표단은 각 지파에서 나온 10명으로 구성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휘하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브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2:16 - 18)

그들은 형제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인지 아니면 신앙인지를 조사했다.

2. 서방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기 위해 무슨 대가라도 지불할 의지가 있음을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하기 전 그들의 사랑과 관심만 보인 것이 아니다. 그 땅이 깨끗지 않으면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며 함께 살자고 한다(19절). 다시 말해서 그곳이 전통적으로 배신의 땅, 우상의 지역이므로 우리에게로 와서 소유지를 취하라고 했다. 이것은 값비싼 사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랑으로 복음은 전해진다. 잃은 형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나?

3. 서방 백성들의 설명을 듣고 동방으로 간 두 족속과 반 지파들은 동의를 했다.

사기꾼이 아닌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어떤 말로 변명하지 않고 그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벌해 주시기를 빌었다(22절).

그들은 자기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비난엔 동의하지 않으나 그들 말처럼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고 동의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22 - 29절)

Ⅳ. 아름다운 끝맺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종 성도들 간에 이 같은 오해로 전쟁 일보직전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요단 동쪽으로 간 지파들은 그들이 쌓은 제단의 목적이 다른 신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서방에 있는 이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길 것을 다시 약속했다. 요단 가에 세운 제단은 실로에 있는 제단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지, 제단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서방의 지파들과 분리하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 연합의 표시였던 것이다.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렀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

1.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배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저들을 보내며 한 말을 다시 기억해 보아야한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5절).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아름다운 끝맺음이 되었다.

2. 진리 편에서 용감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용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리만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즉시 칼을 들고 쫓아가 형제들을 살육하고, 오해로 인해 크게 후회할 뻔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비극을 피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오는 것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시 85:10)

이 말씀이 저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리와 사랑을 조화시킨 삶은 축복된 것이다.

- 2018 사명자 대회 -
주간 자율기도 총 1,405시간!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2018년 사명자대회가 10월 7일(주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간의 진군을 시작하였다.

기도·말씀·전도 운동인 사명자대회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간절한 것은 무너진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고,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설립된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세계복음화와 한국교회의 갱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시금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명자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사도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 이번 2018 사명자대회가 성공적인 기도회가 되도록 하자.

육군 22사단 진중 세례식
11월 3일(토) 오전 6시 30분 출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에서 주관하는 육군 제22사단 진중세례식이 11월 3일(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는 장병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는 설교를 포함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

11월 3일(토)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과 기도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오천수 박정자 오후근 권소희 문동진·김은정 신은미 박동우·백승경 홍성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019년도 봉사지원서
오늘까지 작성 / 사무국에 제출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교구일꾼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사봉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2019년 교회 봉사지원서를 받는다.

지난 주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2019년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10월 21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은마상가 주차장 유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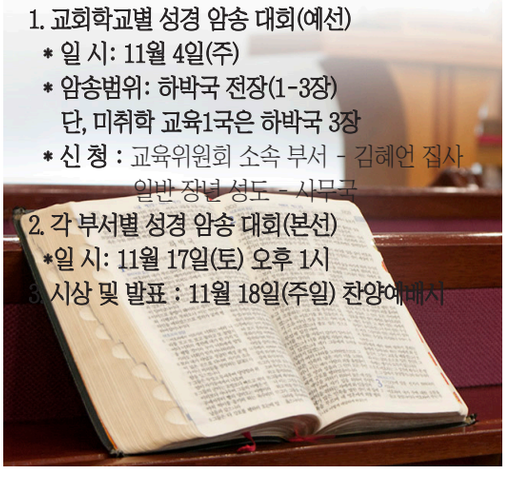
은마아파트 상가 주차장이 11월1일부터 유료화 된다. 주일에 주차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부서별) : 11월 4일(주일)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하박국 전장(1~3장)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일 시: 11월 4일(주)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단, 미취학 교육1국은 하박국 3장
   * 신 청 :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 - 김혜언 집사
     일반 장년 성도 - 사무국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일 시: 11월 17일(토) 오후 1시
3. 시상 및 발표 : 11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



사명자대회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김승록 집사(사명자대회 동원분과장)

2018년 사명자대회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주제로 시작된 2018년 사명자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와 성경읽기를 통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서울교회 설립 전 50일간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높으신 어르신까지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애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의 파수꾼과 전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절실한 때임을 깨달아 서울교회의 모든 교구 식구들과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때 비로소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 일 동안 슬퍼하며 무너진 예루살렘성벽을 52일만에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와 성경읽기를 50일간 진행합니다. 사명자대회 50일간 각 교구별, 다락방별, 교회학교별, 개인별로 자율기도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자율기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성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사명자대회 공동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와 성경읽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2018년도 사명자대회 공동기도제목을 알려드립니다.

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②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③ 우리에게 주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주신 성령님.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제 나이만큼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성삼위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④ 자비와 공의의 보혜사 성령님.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

⑤ 엄위하신 심판주 하나님. 주님의 발아래 엎드려 비옵나니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날 어린양의 피를 이마에 바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판단하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찬양케 하소서.

⑥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소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2018년도 마지막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함께 사명자대회에 적극 동참합시다.

지금 오세요 가브리엘로!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시 92:1~3)

2019년 교회 봉사 신청서가 오늘 마감합니다.

아직도 2019년에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실지 결정 못하신 분들과 지금까지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기다립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를 바라는 가브리엘 찬양대는 매주일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헌신하는 찬양대입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모든 대원들은 이른 아침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기쁨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자의 기도– 교회를 위하여

사명자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차영도 집사 (스데반회 회장)

지금 서울교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영적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로 불러
교회회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기도뿐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낙심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로 무수한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였지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모든 적국의 손에서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도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며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며
무수한 위험을 당했지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들이 오늘 교회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씀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명자대회 기간에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남에게 미루지 맙시다.
새벽을 깨우며 내가 먼저 교회로 달려옵시다.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전쟁에서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핑계대지 맙시다.
때론 힘들고 지치지만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충직한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선교보고 _ 인도네시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1. 신학교 사역

제가 사역하는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에는 이번 학기에 3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었고,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은 빌딩증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소가 너무 좁고 낡아서 강의실조차 없었는데 믿음으로 증축을 시작하고 건물을 보수하고 확장하여서 도서관과 학생들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강의실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지역교회 사역

저는 히둡바루(새생명) 교회(중부 자바 섬의 살라티가 소재)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강의를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7월에는 'Papua에서 전국 대학생 성가 경연대회 심사위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성가 경연대회인데도 이슬람 대학생들이 참여하겠다고 하여서 '히잡'을 모두 벗는 조건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슬람 대학생들은 '히잡'을 벗고 예수님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는 성가를 불렀습니다. 8월 초에는 뽄띠아낙 (깔리만딴 섬) 에서 3년마다 열리는 전국 34개주가 참가하는 성가경연 합창제에 심사위원으로 초빙되어 전국에서 모인 많은 교회음악가들과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에 놀라운 사역자들이 다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단기 팀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양로원과 고아원에서 저희 오마바빠 선교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사역하여서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섬기는 기회를 갖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과 선교센터의 연주회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한국어로 '사명'을 부르며 '십자가'를 외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Gentilly Club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Gentilly란 Genesis-(창세기)부터 to Revelation-(요한 계시록)까지를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는 어린이 성경 공부와 성경암송 모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첫 자를 따서 Gen to Re를 합성하여 Gentore를 Gentilly라고 이름하였습니다. Level 1에서 Level 2까지의 교재와 시청각 자료들과 행정자료들의 준비로 무척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교사 확보와 장소 렌트 연장등 여러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기 도 제 목

1.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2. 인도네시아의 교회들과 신학교들과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3.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광종 이성일 선교사의 새로운 사역에 충성과 복종이 있기를 위해서
4. 오마 바빠 선교센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5.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영구적인 장소를 위하여
6. 저희 가족이 선두에 서시는 하나님을 저희 가족이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7.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8. 파란하늘이가 학교에 입학하여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동정

■ 수상 : 김동수 성도(16교구, 정을순 집사 장남
경기 광주시청 소속)
전국체전 펜싱 플러레 단체 금메달

■ 귀국독주회 : 안효주 성도(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 10월 22일(월) 오후 7시 30분 횃불선교센터 사랑홀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 금주의 식사 : 카레라이스
임범창 집사 이정애 집사 가정
김우진 집사 김일순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떡 제공 : 박동우집사 백승경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8 사명자대회에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불러주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3.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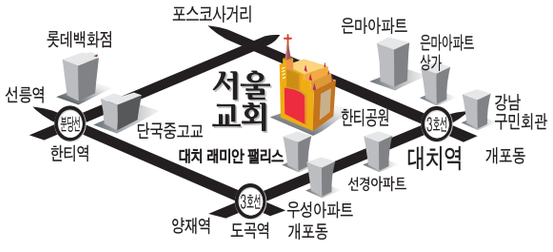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21일	주일	눅 2-3		렘 7-13	
10월22일	월	눅 4-5		렘 14-20	
10월23일	화	눅 6		렘 21-27	
10월24일	수	눅 7:1-8:21		렘 28-32	
10월25일	목	눅 8:22-9:62		렘 33-39	
10월26일	금	눅 10-11		렘 40-48	
10월27일	토	눅 12-13		렘 49-52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5시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